

소크라테스의 辯明(플라토對話篇)

柳滢基 抄譯

아텐人諸君! 나를 告訴하는 者들이 諸君에게는 어떠한 印象을 주었는지 모르나 저 이들의 辯才는 나로 하여금 自我를 거진 잊어버리게 하였다. 그러나 저 이들은 한마대의 眞理도 말하지 아니 하였다. ……이제 諸君은 나에게서 숨김없는 眞相을 드릴 것이나 나는 저 이들처럼 麗句美辭로써 諸君의 귀를 놀래려 아니하고 다만 생각나는 대로 말하려한다. 내 나이 비록 七十을 지났으나 이렇게 法廷에서 기로는 이번이 처음이니 諸君은 나의 語法이나 禮節 보담 事件의 眞相에 着服하여 주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裁判官은 바르게 判決하고 辯者들은 바르게 말하자.

나는 첫째로 以前부터 거긋으로 나를 非難하는 者들에게 먼저 辯明하고 다음으로 近者에 와서 거긋으로 나를 非難하는 者들에게 答辯하려한다. 前者는 諸君의 幼小時에 나를 彈劾하여 말하기를 『소크라테스는 賢者가 있어 天上에 있는 것을 研究하며 地下에 있는 것을 探求하고 그릇된 것을 바른 것같이 說明한다』 하였으니 그러한 誹謗者들을 내가 特히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이 아무 根據도 없이 『이러한 者는 神을 믿지 아니한다』는 所聞을 들리는 까닭이다. ……나를 批難하는 者들은 舊派와 新派의 二種이 있다. 이제 나는 前부터 있어온 舊派에 대하여 먼저 나의 立場을 辯明코저한다. 비록 이일에 내가 얼마나한 成功을 거둔런지는 모르나 形勢가 나에게 대하여 꼭 不利하다는 것을 自覺하고 이 事件의 結末은 하늘게 맡기고 나는 國法을 따라 나의 事由를 說明코저한다.

却說 나를 告發하는 者들의 非難은 『소크라테스는 惡을 行하는 者요 奇怪한 人物이니 그는 地下와 天上의 事象을 探求하며 그릇된 일을 바른 일 같이 보이며 그것을 남에게 가르친다』는 것이다. 이는 아리스토파네스의 壹劇에서 諸君이벌서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事實인즉 나는 이러한 研究를 하여 본 일이 없으니 이는 여기 앉은 이들 中에도 나의 實情을 證據할 이가 많다. ……

혹 諸君中『소크라테스! 君 君에게 對한 이 惡評의 原因은 무엇인가? 만일 君의 言語나 動作에 別한 것이 없었으면 이러한 非難이 일어나지아니 하였을 것이니 그 理由를 말하라』고 할 이가 있을 것이다. 이제 簡單히 說明하면『소크라테스는 賢者』云云은 나의가진 一種의 智慧가답에 난 말인데 이 智慧는 누구나 얻을 수 있는 程度의 智慧다. 나는 超人間的 智慧는 가지지 못하였다는 것을 밝히 말하여둔다.……나의 가진 智慧란 것을 說明하기 위하여 지난 이야기를 할 必要가 있으니 諸君은 激情的인 카에테폰 君을 알았을 것이다. 그가 生前에 델피 神堂에 들어가『소크라테스보다 더욱 智慧로운 이가 있느냐』고 神託을 무르니 對答은『없다』고 하였다. 이 자리에 그의 弟子가 參詣하였으니 諸君이 그에게 물어보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기를 나는 大小事에 智慧가 없는 사람인데 神은 어찌하여 그러한 對答을 하셨나? 또한 神으로써 거짓 啓示도 아니하였을 것이라 하고 나는 나보다 以上가는 智人을 찾아 만나거든 델피 神堂에 찾아가 그 神託이 그릇 되었든 것을 證明하고자 나는 가장 智慧롭다는 政治家를 찾아갔다. 그로 더부러 여러 가지로 討論한 結果비록 自己는 가장 智者인듯이 생각하나 事實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發見하게 되었다.……그와 作別하고 나올 적에 나는 혼자말로『비록 우리가 美와 善은 모르나 그는 알지도 못하며 아는 척하고 나는 나의 無智를 自白하니 그 點으로 보아 나는 그보다 낫다』고 하였다. ……그러고 哲學者를 거터 詩人을 찾아갔다. 그에게서도 참 智慧를 못보고 나는 생각하기를『作詩에는 智慧보다는 自然的 素質과 靈感이 必要하다』고 하였다. ……最後로 나는 職工에게로 갔다. 나는 비록 그에게서 여러 가지 새로운 것을 배웠으나 그도 亦是 前者와 같은 誤解인『안다』는 自信이었다.……이리하여 나의 發見한바는 가장 이름난 이들이 돌리어 가장 미련한 者들이오. 남의 善敎를 別로이못받는 이들 가운데 오이려 智者가 많은 것이 있다.

나는 이러한 調査를 한 까닭으로 數多한 원수를 지었으니 그들이야 말로 나에게 대하여 가장 무서운 誹謗者들이니 이는 거짓으로 나를 謀害하는 까닭이다. 비록 그들은 나를『智者』라는 거짓말로 批評하나『하나님밖에는 智慧로운신이가 하나도 없다』……『소크라테스보다 더욱 智慧로운 이는 없다』하신 神의 啓示는 다만 사람의 智慧는 보잘 것이 없다는 것을 人生에게 가르치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神은 나의 이름을 使用하여 우리에게 偉大한 眞理를 가르치신 것이니 곧『소크라테스와 같이 自己의 智慧는 事實上아무 보잘 것 없다는 것을 깨달은이가 가장 智慧로운 者라』는 것이다.……이리하여 나는 個人의 安樂을 버리고 이리 저리 다니면서 이 眞理를

人生에게 가르치기에 努力하여왔다. 그러므로 나는 精誠을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저 赤貧者가 되었다.

그뿐 아니라 閑暇로운 當者집 子弟들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所謂智慧 있다는 이들을 붙들고 試問하는데 興味를붙이어 傍聽만할뿐아니라 自己들도 나아가 아는 척하는 者들을 試問하여 全然히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 것을 發見하였다. 그러한 부끄러움을 당한 이들은 그 靑年들을 허물하는 대신에 나를 미워하여 『쏘크라테스는 靑年을 腐敗시키는 고약한사람이라』고 말한다. 누가만일 그 理由를 무르면 저 이들은 語塞하여 正當한 對答을 못하고 다만 普通으로 哲人을 評하는 『天上과 地下에 잇는 現象을 가르치며 神을 믿지 않는다』는 말로 나를 誹謗한다. 이리하여 저 이들의 無知만들어나게 된다.……

舊派의 告發에 대하여서는 多少辯明을 하였으니 이제는 新派批難者들에게 辯明코저한다. 新派의 首領들로는 멜레토쓰, 아니터쓰, 라이콘 등이니 그들은 말하기를 『쏘크라테스는 惡을 行하는 者다. 그는 靑年을 腐敗케하며 國家가 받드는 神들을 믿지 아니하고 새 神을 믿는다』하나……그러나 멜레토쓰自身부터 犯行者니 그가 平時에는 꿈도 아니 꾸든 일에 여기서는 가장 愛國의 熱情을 가진 듯이 남을 들어 告訴를 하는 까닭이다. 나는 그 事實을 諸君의 앞에 證據하려한다.

쏘 『멜레토쓰君! 君은 靑年을 善導, 發展시키는데 껍 熱情을 가진듯이 보이니 그것이 事實인가?』

멜 『勿論』

쏘 『그것이 事實이라니 君은 아텐의 靑年을 善導하는 이들이 누구누구임을 반듯이 알 것이니 君의 아는 바를 이 判官들 앞에서 말하여 주기 바라오……』

멜 『無言』

쏘 『왜 말이 없는가? 靑年善導에 그렇듯 熱誠을 가진 者가 왜 한사람의 善導者도 모르는가? 이것이곳 靑年善導에 對한 君의 無關心을 明白히 보이는 것이 아닌가?』

멜 『國法』

쏘 『나는 그러한 答辯을 要求한 것이 아니라 靑年善導者들의 姓名을 말하라는 것이다. 國法에 精通하는 靑年善導者들!』

멜 『여기 앉으신 裁判官諸氏』

쏘 『하하 이 양반들이 저마다 靑年을 善導하며 敎育할 수 있다는 말이지?』

멜 『勿論』

쏘 『그야말로 깃븐 消息일세. 그러면 靑年을 善導하는 이들은 굉장히 많구려. 여기 앉은 이 聽衆도……』

멜 『그들도』

쏘 『叅政官들도?……』

멜 『그들도』

쏘 『그러면 敎役者들은 어떠한가? 그들도 靑年을 善導하나 혹은 腐敗케 하나?』

멜 『그들도 勿論善導』

쏘 『그러면 이 城中人이 다 靑年을 善導하는 이들이오. 오직 나만 靑年을 腐敗케하는 者일세그러. 그것이 君의 主張인가?』

멜 『그것이 나의主張』

쏘 『만일 그렇다면 나야말로 不幸한 人生이나…… 그러나 우리아텐 城의 靑年들을 腐敗케 하는 者는 오직 나 하나뿐이오. 그밖에는 모두가 다 靑年을 善導하는 이들이라면 우리 靑年들이야 오작 히나 幸福스러운 이들이랴? 옳다 君의 對答이 充分히 君의 內心을 發表한 것이다. 君은 平素에 靑年善導같은 데는 꿈도 아니꾸든 者임을 明示한다』

(次號續)